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Jaekeun Youn¹, Kwonsoo Na^{2*}

^{1,2}Daej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religious textbook development through religious pedagogic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ligious subjects and religious textbooks.

[Contents] Religion and culture are important factors and variables that define an era and society. Therefore, religion serves as an important conduit to recognize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ciety. However, Korean society, which needs a broader understanding of religious phenomena, does not have access to education about religion to alleviate religious illiteracy and strengthen religious literacy. Religious education in most schools is perceived as a one-sided indoctrination of religious ideology, or as a system that restricts freedom of faith, as it operates under a specific religious background. Instead of promoting interreligious peace, it promotes antagonism and religious illiteracy.

[Conclusions]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changes in religious educa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rable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ligious pedagogical materials. Furthermore, it proposes religious education as a universal liberal arts education with religious neutrality.

[Keywords] Religious textbooks, Religious curriculum, Religious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 Corresponding to Kwonsoo Na (Lecture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E-mail : luozi@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윤재근¹, 나권수²

¹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²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종교교과와 종교교재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종교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종교문화는 한 시대와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변수이다. 따라서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종교현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한국 사회는 종교적 문맹을 완화하고 종교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에 관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다.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됨에 따라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목으로, 혹은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 간 평화가 아닌 반목을 조장하는 교육, 종교적 문맹을 양산하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

[결론]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종교교과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고, 종교교재의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종교적 중립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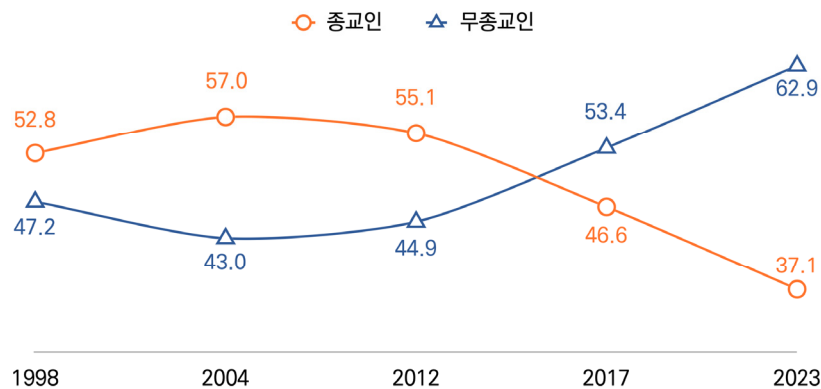
[주제어] 종교교재, 종교교과,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문해력

I. 문제 제기

최근 10여 년간 종교를 믿는 인구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른바 탈종교 현상이다. 통계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인구는 2005년 52.9%에서 2015년 43.9%로 감소해 같은 기간 종교가 없는 인구는 47.1%에서 56.1%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0년 만에 무려 9%p, 약 300만 명이 감소한 셈이다(Statistics Korea, 2016: 15). 이후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보고에서는 종교인 비율이 40%로 감소했고(Gallup, 2021: 3), 2023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최근 조사에서는 37.1%로 저점을 보였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4: 4).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5년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 비율을 역전한 이래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20대의 종교인 비중은 16%, 30대는 19%에 불과해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과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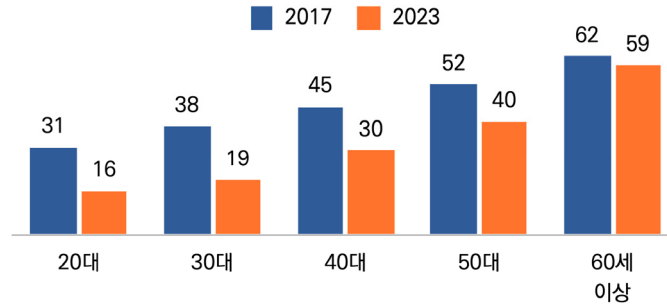
한편, 종교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별 성직자 수 감소세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불교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에서 2022년 6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2’에 의하면 교구 신학생 수 역시 2012년 1,285명에서 2022년 821명으로, 새 사제 수는 131명에서 96명으로 꾸준히 내림세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총신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교단 신학대학·대학원이 정원에 미달하여 성직자 지원자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다(The JoongAng, 2023.10.17.). 종교 관련 학과의 지원자 감소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전공 신입생 모집정지 결정은 학문적 균형과 다양성을 도외시한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학계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표 1> 종교 인구 변화 추이
<Table 1> Religious Population Change Trends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표 2>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Table 2>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Religious People by Age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반면, 저출산과 탈종교 현상 등의 요인으로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에서 종교 지형은 오히려 다원화·다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교 인구의 우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단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양한 종교 문화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Ko, Kang, & Cho, 2018: 98).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이념, 세대, 계층, 빈부 그리고 젠더 등의 다양한 갈등 유형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회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는 갈등지수와 양극화는 우리사회를 점차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구조로 전이하게 하여 사회적 결속과 유대를 약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여기에 종교가 사회균열과 분열의 축으로서 부상하고 있다(Na & Youn, 2022: 88). 한국 사회는 종교 백화점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특정 종교 또는 하나의 신념이 우리 문화의 가치체계를 독점하거나 주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한다(Yoon, 1991: 201-203). 하지만, 반면에 다양한 종교의 병존은 분쟁을 촉발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에 드러난 종교의 민낯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가 부재했음을 목도하였으며,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무슬림 간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종교조직의 세력화, 종교시장을 둘러싼 과열 경쟁, 이웃종교를 향한 일부 종교인의 배타성 분출 등은 이전과 다른 종교적 갈등을 조장한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실체와 행태,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등이 낱알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맹목적 믿음과 종교중독의 이면은 대중의 종교에 대한 외면과 냉소로 이어졌다. 아일린 바커(Eileen Barker)는 종교가 평화라는 미명으로 자행하고 있는 폭력을 멈추고, 이제는 인류와 세계를 위해 “종교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Barker, 2023: 23). 이를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 대다수는 종교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미약하다. 더욱이 종교인도 종교에 관한 왜곡된 정보와 편협한 이해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 하듯이,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를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이라고 한다. 이 종교적 문맹은 종교에 관한 무지와 함께 종교에 대한 그릇된 지식까지 포함한다(Ryu, 2013: 10-12). 종교적 문맹은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국가 간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툼을 양산한다. 오늘날은 국가, 민족, 인종, 문화 등이 과거 어느 시점보다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 인류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곡해와 오해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알리 아사니(Ali S. Asani)는 이를 ‘무지의 충돌’로 진단하며, 무지의 충돌을 유발하는 요인을 종교적 문맹으로 적시한다(Asani, Lee trans., 2012: 253-254).

이와 관련해 최근 문해력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문해’가 “글을 읽고 이해하다.”라면,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를 넘어서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컨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문해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Kim, 2021: 20-21). 이제는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문해력이 주목받는다. 나아가 온갖 정보와 데이터가 해일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텍스트의 독해를 넘어 융복합적 의미 구성을 요하는 다중문해력(multi-literacies)으로 확장되고 있다(Park, 2023: 45-46). 종교 문해력 역시 같은 맥락에 자리한다. 종교문해력은 “국내외 다양한 종교 문화와 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종교의 의미와 영적 가치를 성찰할 수 있으며 이웃의 신앙을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상호 소통과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종교문화 이해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Seong, 2024: 6).

하지만, 종교현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한국 사회는 종교적 문맹을 완화하고 종교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 문화에 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종교에 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Ryu, 2013: 6-18). 미국종교학회(AAR)는 ‘미국 공립학교(K-12)의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에서 종교에 관한 광범위한 문맹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맹으로 연유한 편견과 적대감의 해소를 위해서는 학문적이고 비신앙적 관점의 종교교육을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AAR, 2010: 4-6). EU에서도 유럽의 종교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종교교육의 실효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위치가 미미하다. 종교 교과목은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종교는 사회,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따라서 종교를 모르면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지는 종교적 편견을 갖게 하며, 편향된 생각

은 다시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 종교적 문맹이 개인의 주변 문화에 대한 물이해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즉, 조너선 섉스(Jonathan Sacks)는 종교가 갈등의 원천이 아닌 평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자’를 위해 공간을 내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Sacks, 2007: 6).”고 말한다.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 문해력의 함양과 종교적 문맹의 탈피는 종교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Na & Youn, 2019: 127).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 종교교육의 공구서로서 종교교재에 주목한다. 특정 종교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종교교과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종교교재의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종교교과 개정과 종교교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여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수시개정체제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부분개정되고 있다. 종교교과와 관련한 교육과정은 1992년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문서로 고시되어,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11년(2012년) 교과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최근 2022년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Youn, 2010: 74-76, Yoo, 2016: 393).

제1차, 2차 교육과정에는 ‘종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Ko, 2012: 168-177). 제1차 교육과정(1954)에서는 ‘종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고, 제2차 교육과정(1963) 시기 제정한 <사립학교법>에도 ‘종교’에 관한 사항은 없다. 주지하듯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등의 근대화 과정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사학은 종립학교였다. 이들 종립학교는 설립 주체와 관련한 특정 종교의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입해 종교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 시기의 종교교육은 중등교육 과정에 유기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신앙교육적 성격이 짙은 비정규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1973)은 고교평준화 정책 등의 교육정책으로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촉발되는 시기였다(Ko, 2012: 178-180). 1969년부터 시행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는 당시 중학교 진학을 위해 과열되고 있는 교육열의 냉각을 목표로 한 시책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률의 급증은 다시 고교 입시 경쟁의 과열로 이어져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열

을 더욱 가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중등교육의 정상화, 과열 입시 경쟁의 완화, 교육기회의 확대 등 정책적 성과를 확보하였지만, 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1968), 고교평준화 정책(1973),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1980) 등 일련의 개혁조치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결국 종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건학정신과 특색을 구현하는 교육활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켰다(Shin, 1997: 193-194).

제4차 교육과정(1981)부터 종교교과가 자유선택교과에 포함되었다. 이는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증진하려는 새로운 교육 이념과 비공식 교과였던 종교를 공식 교과로 인정해달라는 종립학교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Yoon, 1990: 142-151). 종교교과가 자유선택교과에 포함된 것은 종교교육이 각 종립학교의 재량에 따라 진행될 뿐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던 기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평가되었다. 종교교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인은 종교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획기적 변화였다. 그러나 종교교과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르칠 교사 자격에 관한 명시도 없었다.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나 지침서도 개발되지 않았고, 종교 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도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편제와 시수규정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일선학교에서는 개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2008: 139-140).

제5차 교육과정(1987)에서는 ‘자유선택교과’에서 ‘교양선택교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수단위도 2단위로 고정되어 종교교과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는 보통교과에서 습득할 수 없는 다양한 교양교과를 경험하게 하여 삶에 필요한 폭넓은 안목을 연마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126). 그럼에도 교양선택교과로서의 별도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교양선택교과의 개설여부와 교과선택권이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종교교과의 개설여부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인정도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 편찬한 종교교과서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 점과 종교 담당 교사를 위한 교원자격 연수가 시행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6차 교육과정(1992)에서는 교양선택교과 전체의 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관한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종교교과도 교육과정이 문서로 제시되는 한편, 관련 해설서가 편찬되었다. 개별종교의 입장에서 원칙 없이 행해지던 종교교육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침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부 교육내용에서도 마지막 장의 특정종교에 관한 서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교에 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종교학적 관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종교교과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127). 다만, 일부 종교교과서에 노출된 개

별 종단의 호교론적 내용이나 타종교 서술의 배타성은 제6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Chung, 2001: 19).

제7차 교육과정(1997)은 기존 제6차 교육과정의 ‘교양교육’과 ‘신앙교육’의 절충적인 교과 성격을 유지하면서, 교양교과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였다(MEST, 2008: 142). 이를테면 종교교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을 제시하여 교육학적 틀 속에서 체계화한 것이다. 내용상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강화되었고, 둘째, 목표설정과 6개의 하위목표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의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목표개념이 이질적이고 비논리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한 제6차 종교 교육과정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종교학적 설명을 보강하고, 세계와 한국의 다양한 종교전통을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각 종교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는 종교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구체화하고 있다(Yoo, 2016: 400).

6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이를 개정하여 편성한 7차 교육과정 이후에도 여전히 제기된 문제는 일선 종립학교에서 신앙적 종교교육과 객관적 종교교육 간의 조율이었다. 이 문제는 쉽게 양보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2007년 이후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경시할 수 없는 종립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신앙적 종교교육과 교양 수준으로서의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병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취지와 틀을 유지하면서도 종교학적 교육이 좀 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종교인 및 무종교인이 공존하는 교실 안의 현실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이에 교과과정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용어나 표현 등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MEST, 2008: 104-105).

III. 종교교재 개발의 방향성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편은 수시개정체제로 이루어진다. 종교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2007년과 2011년, 2012년, 2015년, 그리고 2022년에 고시되었다. 종교교과의 명칭도 4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5~7차 교육과정의 ‘종교’에서 2007년에는 ‘생활과 종교’, 2011·2012·2015년에는 ‘종교학’, 2022년에는 ‘삶과 종교’로 명명되었다. 이 같은 교과명의 변화는 그만큼 종교교과 교육의 방향성에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교과의 정체성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011년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종교성 제고, 인격의 확립, 지혜의 추구, 윤리교육, 도덕교육, 인격교육, 심성교육, 그리고 전인교육 등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다가, 2011년 교육과정에서부터 성찰 중심의 교양교육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Kang, 2007: 159). 2011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표 3> 주요 개정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Religion Subject in Major Revised Curriculum

구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종교	종교학	삶과 종교
성격	-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일반 이론 습득 - 우주의 의미나 삶과 죽음 같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해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	- 인간과 종교의 관계,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문화, 사회와 종교의 관계 이해 - 종교와 윤리, 종교와 사회 정의, 종교 간 차이와 차별 등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의 함양 - 종교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에 기여	-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회 현상, 종교 전통을 이해하여 종교로부터 삶의 지혜와 가치를 함양하도록 설계 -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의미와 다양한 종교를 탐구함으로써 인간과 종교 문화를 이해하고 종교적 지혜를 배우는 과목 - 종교로부터 배운 상호존중과 포용, 인간-자연 및 개인-공동체의 관계 맺음의 가치와 실천하는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 과목
목표	-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확충 -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름	-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 이해 - 종교의 구성 요소 이해 - 종교의 세계관 이해 - 세계와 한국의 종교사 이해 - 현대사회와 종교의 연관성 이해 - 개별 종교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 성찰	- 삶에서 종교의 의미를 이해하여 삶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종교적 성찰 - 다양한 종교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며, 종교적 지혜 발견 - 삶과 문화유산에 남겨진 종교적 아름다움 발견 및 창의력 육성 -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과 사회 변화에 적용과 포용성 육성
내용 체계	(1) 인간과 종교 (2) 종교 현상의 이해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4)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5) 세계의 종교와 문화 (6) 한국의 종교와 문화 (7) 종교 공동체의 이해 (8)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1) 인간과 종교 (2) 종교의 구성 (3) 종교의 세계관 (4) 종교전통과 문화 유산 (5) 현대 사회와 종교 (6) 개별 종교들의 이해	(1) 인간과 종교 (2)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3) 종교 문화유산 (4)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
성취 기준	6개 항목	6개 영역별 총 41개 항목	4개 영역별 총 14개 항목

*참조: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137;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58-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교양 교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96-107 및 김경이(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 교육 『삶과 종교』에 대한 고찰, 35-36.

에도 중립학교 측은 종교교육이 영성·종교성 교육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예컨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영적 지혜’라는 전제를 가진 영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종교학’ 교육과정의 ‘탈신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 ‘종교학’이 과목명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종교학’ 교과가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2022년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과목명을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 변경하고, 종교 교육과정에 ‘영성’ 개념을 포함한 조치는 신앙교육을 지향하는 중립학교의 중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o, 2023: 74-75).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의 강화는 학습자의 종교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학교의 종교교과 개설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종교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의 일부인 만큼, 특정 학교와 종교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습자들을 위한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곧 학생의 종교 자유 보장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현 등 여러 요인이 종교교과에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종교에 관한 교육 지침’(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을 참조할 수 있다(Ko, 2023: 92).

첫째, 접근 방식은 신앙적이지 않고 학문적이다. 둘째, 교육자는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인식하도록 노력하지만, 특정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수업은 종교에 관해 교육하지만, 어떤 종교도 홍보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넷째, 학교는 학생에게 종교적 신념에 대해 알려줄 수 있지만, 특정 신념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전통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자기 종교의 대변인이 되도록 요청해서는 않된다(NEA, 2018.12.4.).

이 지침은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도 종교 교육과정 개정과 종교교재 개발에 임의성을 방지하고 학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최소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 함양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 보고 있다. 교양교육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자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그 본질이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적 교육이 교양교육의 주요 덕목인 것이다. 이 인문학적 교양교육은 전인교육으로서 올

바른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교육이 바로 종교교육이다.

이미 인성교육을 종교교육의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들 연구는 인성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제기한다(Seong & Park, 2015: 8-10). 말하자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즉, 종교교육은 도덕과 정서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천력 있는 도덕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류 공통의 윤리를 지향한다. 이와 관련해 프레데릭 스트렝(Frederick J. Streng)은 종교를 ‘궁극적 변화의 수단’(a means to ultimate transformation)으로 주목하였다. 그는 종교가 단순한 신앙 체계나 의식의 집합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라고 보았다. 이처럼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으로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교양교육을 추구해야 한다(Na & Youn, 2015: 78).

둘째, 종교교육은 교화(Indoctrination)와 교육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교과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자질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교육과정에 종교교과가 편제되기 전부터 종립학교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종교 관련 수업을 개설 운영했다. 이러한 수업은 주로 근무 중인 성직자들이 담당했으며, 그 결과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일부 있었다. 제도적 문제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임시교원양성소에서 종교 교사를 위한 자격연수가 개설되었다. 제도의 빈자리에서 시작한 종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성직자와 교사라는 정체성의 혼선을 가져왔다. 더욱이 특정 종교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만 종교교사를 찾아볼 수 있는 현실로 타교과 교사와는 다른 그들만의 특수성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들이 종교교과를 담당하게 된다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으로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Kim, 2023: 4-7).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교육학적 공리가 있다. 이는 교사의 종교관이나 태도가 종교교육의 현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종파교육과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로 인해 ‘종교’라는 공통의 과목명 아래 서로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ang, 2009: 36).

더욱이 이제는 특정 종교를 전달하는 고백적인 교육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과 이탈 현상으로 종교교육의 초점이 종교가 있는 학생에서 종교가 없는 학생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틀과 신앙을 넘어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요구했다면, 이제는 종교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에게 종교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하다. 종립학교에서 보편적 종교교육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일반 국공립, 사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종교에 관한 교양교육의 결여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전반이 종교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문화와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될 때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 가능한 교양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Chung, 2002: 270).

셋째, 종교교육은 현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시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 교양 교과로서 종교 문해력 함양을 통해 지혜로운 시민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Kim, 2023: 20). 진로 교육에서 진로의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균형 잡힌 시간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길이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선택 교과로서 ‘삶과 종교’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탐구하는 교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종교교육에는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종교적 가치가 어떻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교육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종교를 단순한 신앙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교과에 시의성을 담아야 한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시대에 인간들은 AI는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이는 인간이 해왔던 대부분의 노동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프킨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예견한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오랫동안 유용했지만, 이제는 배움과 동시에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무한히 양산되는 지식과 점점 짧아지는 ‘지식의 반감기’(Half-Life of Facts)는 지식의 종말을 예고한다. 종교교육도 이제 개별적 지식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무한히 생성되는 지식을 융합하는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Na & Youn, 2019: 129, 136). 현대 사회의 종교적 갈등, 다문화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관계 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학생들이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과 여러 해석이 얹혀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다름’이다. 다름이 부각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종교 간 협력과 평화를 도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교육의 책무라 하겠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의 교리나 교의 등의 학습에만 치중한다면,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잃고 본래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Na & Youn, 2022: 95). 종교교육을 특정 종파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종교교육, 포괄적인 교양교육, 건전한 종교관 형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종교 간 대화를 견인하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IV. 나가는 말

종교 다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종교교육은 종교를 인류의 문화나 지혜로 접근하기보다는, 설립 재단의 특정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고, 삶의 정체성 확립이나 건전한 교양과 종교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종교교육의 실효성이 모호해지고, 이를 폄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종교 교과명의 빈번한 변화는 종교의 방향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과와 정체성이 매번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앙교육을 지향하는 중립학교와 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춘 건전한 교양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중론이 대치된 것이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종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러한 종교교육은 자칫 종교 간 융화에 역행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생·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종교 신념과 문화를 이해하는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겸비될 때 비로소 종교 간 대화와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 요컨대 종교 간 대화는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가 건전한 교양교육으로 제자리를 찾는데 달려있다고 본다.

종교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 곧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에 내포한 보편적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교재 개발에도 학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이어야 하고, 둘째, 종교교육은 교화(Indoctrination)와 교육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셋째, 종교교육은 현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시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종교교육은 종교의 이념을 강제하는 수업으로, 혹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교육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종교 간 평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목을 조장하고, 종교적 문맹을 부추기는 교육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특정 종교전통을 주입하고 전파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으로서 다름을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겠다. 정리하면, 종교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교재 개발과 교육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종교교육은 우리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종교 간 대화를 견인하는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sani, A. *Enhancing Religious Literacy*. 이창신 옮김 (2012). 하버드 교양 강의. 파주: 김영사.
- Barker, E. (2023). For Better or for Worse? Potencies of Religions in Directing the Global Scene. *How Can Religions Help the World Solve Its Civilizational Crises?*. The Third World SangSaeng Forum hosted by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 Chung, C. H. (2001). The 7th Curriculum Revision and Teaching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3-42.
- Kim, E. Y. (2023). Prospects and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Subject of Religion in Human Life: Focusing on Teachers' Autonomy and Experti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1-16.
- Kim, K. Y. (2023).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19-40.
- Ko, B. C. (2023). Reflecting on the Dilemma of Compulsory Spiritual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5, 69-102.
- Na, K. S. & Youn, J. K. (2015).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75-101.
- Na, K. S. & Youn, J. K. (2019). Task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119-142.
- Na, K. S. & Youn, J. K. (2022). Analysis of Religious Education Status as General Education and Research on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1, 81-99.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018.12.4.).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Retrieved 2024.8.5. from <https://www.nea.org/professional-excellence/student-engagement/tools-tips/teaching-about-religion>.
- Park, B. S. (2023). Religious Literacy in Multi-religious Societies: Focusing on Competency-Based Religious Literacy Diagnosis. *Religion and Culture*, 44, 41-67.
- Ryu, S. M. (2013).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0, 1-34.
- Sacks, J. *Dignity of Difference: How to Avoid the Clash of Civilizations*. 임재서 옮김 (2007).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서울: 말글빛냄.
- Seong, H. W. & Park, B. S. (2015). Character-Education Promotion Law and religious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 Education*, 49, 1-22.
- Seong, H. Y. (2024). The Meaning and Role of Religious Literacy: Focusing on Social Ap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2024 Fall Academic Conference*.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Studies.
- Shin, H. S. (1997). Alternatives, and Choices in Korea's Private School Policy (I).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5(3), 185-216.
-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2010).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 The JoongAng (2023.10.17.). *Monasticism is in Tatters, Chongshin University is the First to Fall Short: Why are Buddhists and Christians Teetering on the 'Religious Cliff'?*. Retrieved 2024.8.5.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9944>.
- Yoo, S. H. (2016). Discussion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from a Christian-education Perspective: Focused on religion curriculum in Korean schools. *Mission and Theology*, 40, 389-419.
- Yoon, Y. H. (1990).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subject: Elective subject of the new curriculum) Religion. *Education Promotion*, 2(4), 142-151.
- Youn. J. K. (2010). A Pluralistic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in a Mission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34, 73-105.
- 강돈구 (2009).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종교교육 비교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ng, D. K. (2009). Religious Policy and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Comparativ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고병철 (2012).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o, B. C. (2012). *Theory of Religious Subject Educ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Seoul: Bagmunsa.
- 고병철, 강돈구, 조현범 (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Translated in English) Ko, B. C., Kang, D. K., & Cho, H. B. (2018). *Religious Status in Korea 2018*.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High School Curriculum Explanation: Liberal Art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01). *High School Curriculum Explanation: Liberal Arts*.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김윤정 (2021). EBS 당신의 문해력. 고양: 한국교육방송공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J. (2021). *EBS Your Literacy*. Goyang: EBS BOOKS.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2023 한국인의 종교현황”. 넘버즈 224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Data Institute (2024). 2023 Religious Status of Koreans, *Numbers 224*.
- 윤이흠 (1991).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Translated in English) Yoon, Y. H. (1991). *Korean Religion Study Vol.1*. Seoul: Jibmundang.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Translated in English) Statistics Korea (2016).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ample Collection Results: Population, Household, and Housing Basic Characteristics.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Translated in English) Gallup Korea (2021). Religion of Koreans 1984-2021.